'의예과' 전남대 281점·조선대 279점 지원 가능

광주진학부장協등6월모평가채점분석

서울대 인문 273점·자연 271점 결과는 내달 1일 수험생에 통보 내일 고3 진학부장 대상 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전남대 의예과는 281점, 조선대 의예과는 279점이면 지원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은 국·수·탐 원 점수 300점 기준으로 지원 가능 대학 및 학과를 파악했다.

분석 결과 전남대 인문계열은 국어교육과 241 점, 영어교육과 231점, 경영학부 230점, 행정학과 226점, 정치외교학과 225점, 국어국문학과 22 1점이며,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218점 내외로 예측했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81점, 치의예과 277점, 약학부 274점, 수의예과 273점, 전기공학과 250 점, 수학과 211점, 간호학과 238점으로, 자연계 열 지원 가능 점수는 수학 지정(미적분/기하) 학과는 206점, 수학 미지정(미적분/기하/확률 과 통계 모두 지원 가능) 학과는 218점 내외로

조선대의 경우 의예과 279점, 치의예과 275점, 약학과 273점, 간호학과 222점 내외로 예측했으 며 정시 선발 비율이 1.6%로 대폭 축소돼 정시 지원시 이월 인원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273점 내외, 자연계열 271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고려대·연세대는 인문계열 270점 내외, 자연계열 263점 내외에서 각각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 가능 점수는 26

3점 내외, 광주교대 231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 대학 268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이번 모의평가 결과는 오는 7월1일 수험생에 게 통보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한국사·제2외국 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일 오후 7시 광주시교육연 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분석설명회를 개최 한다. 실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는 7월9일 오후 7 시 정보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김다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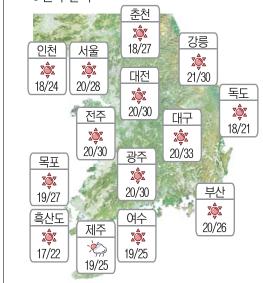
오늘의날

☀해뜸 05:18 해짐 19:47 → 달뜸 19:09 달짐 03:57

●광주 · 전남 날씨

광주	맑음	20/30	장성	맑음	18/30
목포	맑음	19/27	보성	맑음	17/29
여수	맑음	19/25	함평	맑음	17/28
나주	맑음	18/30	순천	맑음	18/29
완도	맑음	18/28	영광	맑음	18/28
구례	맑음	18/31	진도	맑음	17/26
강진	맑음	18/30	흑산도	맑음	17/22
해남	맑음	17/29	고흥	맑음	18/28
광양	맑음	19/30	담양	맑음	18/30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부	먼바다(북)	0.5-1.0	0.5-1.0	
		먼바다(남)	0.5-1.0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0.5-0.5	0.5-0.5	
		먼바다(동)	0.5-1.0	0.5-1.0	
		먼바다(서)	0.5-1.0	0.5-1.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1:38	07:03		08:11	02:30	녹동	08:50	03:3
	13:20	18:46		20:59	14:08		21:43	15:0

●생활정보지수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야외건조 좋아요

11일(수)	12일(목)	13일(금)	
(18/29) 구름조금	(19/28) 구름많음	(21/27) 구름비	
14일(토)	15일(일)	16일(월)	
(22/28) 구름많음	(22/27) 구름많음	(21/28) 구름많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전남 진드기매개감염병 최근 10년새 49명 사망

SFTS 33명·쯔쯔가무시증 16명

전남에서 진드기매개감염병으로 최근 10년 간 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진드기 활동이 활발 해지고 개체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2024년 전남에서 123명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 S)에 감염돼 33명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쪼쯔 가무시증감염자수는 1만1천995명으로 이중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4-11월 주로 발생하는 SFTS와 쪼쪼가무시증 은 농작업, 등산, 캠핑, 벌초 등 야외 활동이 많 아지면서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

SFTS는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이 악화하면 혈소판 감소, 간 기능 장애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령자나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1 0일 이내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 통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피)가 생긴다. 항생제 치료로 쉽게 회복 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뇌염 등 합병증 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시 긴 소매와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은 "야외 활동 후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한다"고당부했다. /양시원기자



안전점검 꼼꼼하게···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9일 오전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장에서 서구 안전보안관 및 5개 구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시설 구조물의 안전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전남교육정책 만족도 '상승'…긍정 평가 늘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2025 여론조사'

학부모·도민 전년比 8.8%p·13%p 증가 교직원 9.2%p↑···"교육환경 변화 핵심"

전남도교육청의 민선 4기 교육정책에 대해 전남도민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높 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가 지난 5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도민과 학 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와 도민의 만족도는 62.2%, 53.9%로 전년 대비 각각 8.8%p, 13%p 증가했다.

교직원 만족도는 76.4%로 전년 대비 9.2%p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 상승의 주요 배경은 '2024 대한 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와 전 남학생교육수당 지급, 2030교실 추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직접 체감한 교육환경 변화가 만족도를 견인한 핵심 요인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남학생교육수당의

가장 큰 효과로는 '교육비 부담 경감'이 꼽혔다. 실수혜자인 초등학생 학부모 50% 이상이 교육 비 경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6년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도민과 학부모 73.8%가 긍정 적으로 평가했으며, 학부모 응답자의 74.9%는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래 교육을 대표하는 2030교실 정책에 대해서도 도민·학부모의 70.3%가 공감했다. 교직원들은 '학생 주도 참여형 수업'을 기대효과의 1순위로 꼽아 2030교실을 디지털 환경 개선을 넘어수업 방식의 근본적 전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다이기자



+